

연세 한국어 읽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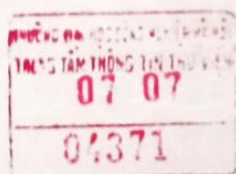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연세 한국어
읽기 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머리말

국내 최고의 명성으로 한국어 교육 50년의 전통을 이어 온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교재를 편찬해 왔다. 그리고 최근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해외 동포와 외국인이 늘면서 한국어 교재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교재인 '연세 한국어' 1-6과 '연세 한국어 활용연습' 1-6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에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에서 출간하는 '연세 한국어 읽기 5'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재로서 고급 수준의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 독해 능력은 물론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게 함으로써 전문 분야 관련 어휘력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주제에 관한 사고력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사고 작용을 통해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세 한국어 읽기 5'는 특히 글의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어 텍스트의 전형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다양한 주제를 응집력 있게 표현한 글로서 문체와 구성에 있어서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와 재미를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최근의 글, 한국인들에게 사랑 받는 저자의 글을 선정하였다.

'연세 한국어 읽기 5'가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사하려는 모든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일러두기

- '연세 한국어 읽기 5'는 총 1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뒤에 모범 답안, 어휘 색인, 원저 출전이 학습자를 위한 자료로서 붙어 있다. 각 단원의 글은 수필, 설명문, 기행문, 비평문, 시, 소설 등 고급 학습자들이 많이 접할 수 있으며 접해야 하는 다양한 장르의 글을 선정하였다.
- 10개의 각 단원은 도입 그림과 질문, 본문, 어휘, 어휘 연습, 내용 이해, 이야기해 봅시다/써 봅시다, 더 읽어보기로 되어 있다.
- 도입 그림과 질문은 읽기 전 단계로서, 학습자가 읽을 내용과 관련된 그림 혹은 사진을 보며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 읽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 본문은 각 텍스트 유형의 특성을 살린 글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원저자의 문체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원전을 그대로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정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방대하다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본문에 '중략'으로 표시하여 관심이 있는 학습자 스스로 직접 원전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는 '글쓴이 소개'를 두어, 글의 저자를 소개함으로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어휘'는 본문 아래에 한국어로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여 고급 학습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문 다음에 어휘 연습이 있어 학습자들의 어휘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하였다. 어휘 연습은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주제 관련 어휘를 연습하고, 2단계에서는 본문에 사용된 주요 어휘를 연습하고, 3단계는 본문에 사용된 관용구 혹은 속담 등을 연습하여 어휘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내용 이해'는 학습자들이 읽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글의 전체적인 주제나 글쓴이의 의도와 글의 종류 등을 질문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본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왔으며, 2단계는 본문의 구조와 짜임에 대한 질문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개요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였다. 3단계는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으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 '이야기해 봅시다/써 봅시다'는 읽은 후 활동으로서,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말하거나 쓰기와 같은 다양한 생산적 언어활동이 가능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유사한 주제에 관한 토론을 통해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논설문, 기행문, 수필 등 각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장르에 맞는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더 읽어보기'는 본문과 동일한 텍스트 유형의 유사한 주제를 다룬 글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업활동 이외에 학습자들의 개별학습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사한 난이도의 글을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에 내용 이해를 묻는 질문을 수록하여 학습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정답에는 '어휘 연습'과 '내용 이해'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을 제시하여 학습자 혼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어휘 색인에서는 각 단원에서 다루어진 주요 어휘를 각각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각 어휘가 제시되었던 쪽수와 함께 제시하였다.
- 출전에서는 본문과 이야기해 봅시다/써 봅시다, 더 읽어보기 등 '연세 한국어 읽기 5'에 제시된 모든 원저의 출전과 쪽수를 밝힘으로써 심화학습을 원하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원전을 찾아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차례

머리말_	3
일러두기_	4
내용 구성_	9

제1과	책 읽기의 즐거움	10
제2과	생활 속의 과학	20
제3과	경제와 삶	32
제4과	길에서 만나는 역사	44
제5과	문화의 차이	56
제6과	언어와 소통	66
제7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	78
제8과	시대 속의 인물	90
제9과	시와 노래	102
제10과	소설 읽기와 치유하기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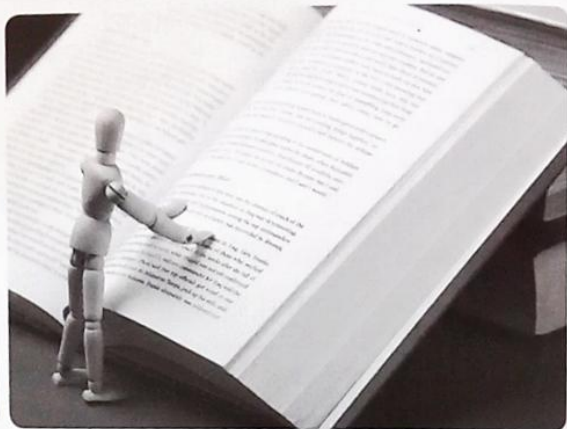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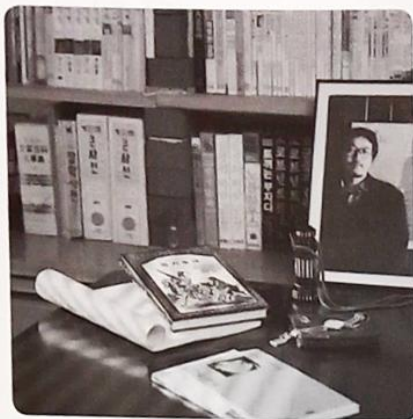
모범 답안_	146
어휘 색인_	154
출전_	157

내용 구성

과	구분	제목	지은이	텍스트	학습 목표	내용
1. 책 읽기의 즐거움	본문	사전을 찾아가며 읽는 즐거움	이순원	수필	독서의 경험을 다룬 수필을 읽고 글쓰이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사전을 찾아가며 책을 읽게 된 경험
	더 읽어 보기	정독의 시간	하성란			잘못된 속독의 습관으로 인한 오독
2. 생활 속의 과학	본문	머피의 법칙	정재승	수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과학적 법칙에 대한 수필을 읽고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머피의 법칙에 대한 잘못된 인식
	더 읽어 보기	누구든 천재처럼 될 수 있다	이인식			천재의 정의에 대한 재해석
3. 경제와 삶	본문	저름신의 시대	안치용	논리적인 글	논리적인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단락의 요점을 정리하고, 글쓰이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	현대인들의 무분별한 소비 태도
	더 읽어 보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준구			경제 사회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
4. 길에서 만나는 역사	본문	카이로	이희수	기행문	기행문을 읽고 여행의 여정과 심리적 표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집트 문명의 요람인 카이로 기행
	더 읽어 보기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 갑니다	신영복			온달 산성 기행
5. 문화의 차이	본문	시선의 차이	진중권	문화적 비평문	문화를 비평하는 글을 읽고 글의 요점을 파악하고, 글쓰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동서양의 동일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
	더 읽어 보기	한국인의 관계 맺기	한규석, 최상진			한국 사람들의 관계 맺기의 양상
6. 언어와 소통	본문	남자의 말, 여자의 말	장소원, 남윤진, 이흥식, 이윤경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단락의 요점을 정리하고,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남녀 간에 사용하는 말과 대화의 양상
	더 읽어 보기	관심과 애정이 담긴 질문이 소통을 살린다	하지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질문과 대답
7. 생각을 나누는 대화	본문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	최재천, 도정일	대담	대담의 일부를 읽고 전체 대담의 흐름을 유추하며 대담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분야가 다른 두 학자 간의 대담
	더 읽어 보기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것	최인호, 법정			일상의 행복에 대한 대담
8. 시대 속의 인물	본문	동주 형의 추억	문익환	수필	인물에 대한 글을 읽고 글의 전개와 표현 방식을 파악하여 인물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윤동주에 대한 추억
	더 읽어 보기	가슴은 한국에, 시야는 세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
9. 시와 노래	본문	국화 옆에서	서정주	시, 노래	한국의 현대시와 노랫말을 읽고 시와 노래의 특성을 파악하고 심상과 표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역정을 통과한 성숙
		귀천	천상병			삶과 죽음의 의미
		즐거운 편지	황동규			간절한 사랑
		광화문 연가	이영훈			추억의 거리
		거위의 꿈	이적			현실의 난관을 뛰어넘는 꿈
10. 소설 읽기와 치유하기	본문	풍선을 샀어	조경란	소설	현대 소설의 일부를 읽고 전체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고, 문학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자아에 대한 성찰적 사유를 수행할 수 있다	정신적 고통과 불안의 치유

제1과

책 읽기의 즐거움



1. 다음은 책을 읽는 방법에 관한 명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어떤 책은 맛만 볼 것이고, 어떤 책은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며, 또 어떤 책은 씹어서 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 프랜시스 베이컨 -
- 좋은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새 벗을 얻는 것과 같고, 전에 정독한 책을 다시 읽을 때에는 옛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다. - 아담 스미스 -

2. 여러분은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을 찾아가며 읽는 즐거움

이순원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대관령¹⁾ 아래 신촌에서 자라 강릉 시내의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내 키는 반에서 둘째로 작았다. 그러나 꿈만은 아무저서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이나 급우들한테 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썼다. '키가 작고, 시골에서 왔다고 만만히 보지 마라.'하는 생각으로 뭔가 크게 한번 잘난 척을 해 보고 싶었는데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어 시간에 드디어 그 기회가 왔다. 옛날 교육과 요즘 교육의 차이점을 설명하시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향해 물으셨다.

"그런데 이 반에는 문교부²⁾ 장관³⁾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

솔직히 어른이 된 지금도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은데, 이제 갓 중학교에 들어간 놈들이 그걸 알 턱이 없었다. 모두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선생님의 얼굴만 쳐다보자, 선생님이 국어책을 이리저리 살피며 혼잣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배우는 책엔 장관 이름이 안 나오나?"

저 혼자만 약고 똑똑한 줄 알았던 나는 그 말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힌트로 알아듣고는 선생님을 따라 국어책의 맨 뒷장을 펼쳐 보았다. 퍼낸이만 '문교부'로 나와 있을 뿐, 장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책엔 혹시?"하는 마음으로 나는 얼른 가방 속을 뒤져 다른 책을 꺼냈다. 그 책은 다음 시간에 배울 과학책이었는데, 거기에 바로 장관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었다. 걸장 제일 꼭대기 오른 쪽에 '문교부 장관 김정필'하고.

'김'씨라는 성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우리 반에도 '김'씨와 '전'씨 성을 가진 아이가 있는데 '김'씨라는 성은 또 왜 없으랴 싶었다. 나는 기운차게 손을 들고 대답했다.

"네.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의 이름은 김정필입니다."

"김정필?"



1) 대관령 :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에 있는 고개.

2) 문교부 : '교육과학기술부'의 옛날 이름.

3) 장관 : 국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행정 각부의 우두머리.

“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⁴⁾ 책까지 들어 보이자, 아이들은 ‘역시’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거나 내가 꺼낸 책을 찾기 위해 성급하게 가방을 뒤졌고, 선생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포복절도하셨다.⁵⁾ 선생님께서 왜 웃으시는지 나도 몰랐고, 아이들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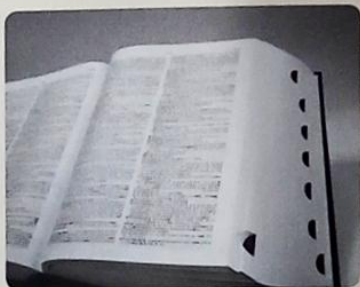
5 “으허 으허, 그건 문교부 장관의 이름이 아니라 그 책이 문교부의 검정⁶⁾을 받았다는 뜻이다. 으허, 살다가 이렇게 배꼽 빠지게 웃는 날도, 으허, 있네.”

그제서야 반 아이들도 ‘와!’하고 책상을 치며 웃었다. 아이들 앞에서 잘난 척 한번 해 보려다가 ‘문교부 장관 검정필’⁷⁾이라는 엉뚱한 별명만 얻은 것이다.

10 그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중학생이 된 다음 처음으로 국어사전을 뒤져 ‘검정필’을 찾아보았다. ‘검정필’은 나와 있지 않고 ‘검정’과 ‘검정 교과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다. 덕분에 ‘문교부 장관 검정필’이라는 벼슬만 높지 명예와는 거리가 먼 별명을 얻기는 했었다. 그리고 그 때부터 나는 조금이라도 그 뜻에 의문이 생기는 말이 있으면 버릇처럼 사전을 찾아보곤 했다.

〈중략〉

15 나는 사전을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꼭 소설가라는 직업 때문에 자주 사전을 뒤져 보는 것은 아니다. 아주 오래 전 중1 시절의 ‘검정필’ 사건 이후에 생긴 버릇이긴 하지만, 새로운 말과 새로운 지식을 찾아 읽는 즐거움은 무엇에도 비할 수가 없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만
20 큼 가슴 설레고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⁸⁾라는 말처럼 사전이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한들 그것을 찾아보지 않으면 사전 속의 지식은 남의 머릿속에 든 지식일 뿐이다. 아무리 크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할지라도 그 샘물을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목을
25 축일 수가 있겠는가? 목동이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그 물가에서 목을 축이는 일은 말 스스로가 해야 하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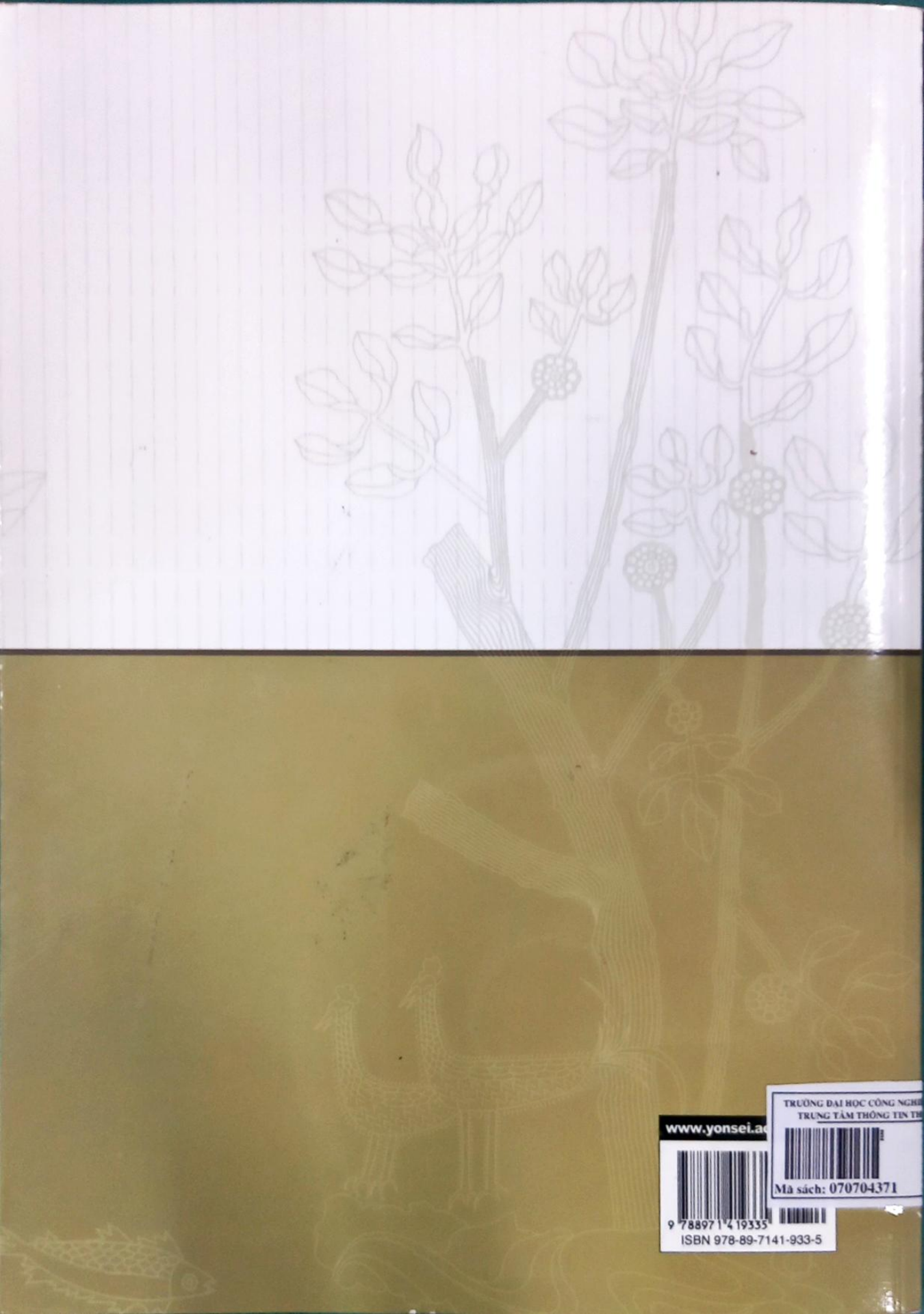
4) 의기양양하다: 바라던 대로 되어 기상이 씩씩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행동하다.

5) 포복절도하다: 몹시 웃다. 아주 우스워하다.

6) 검정: 자격을 검사하여 인정하는 일.

7) 검정필: 검정을 마친.

8)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Ệ
TRUNG TÂM THÔNG TIN TH

www.yonsei.ac.kr



9 788971 419335

ISBN 978-89-7141-933-5



Mã sách: 070704371